

월요논단



김 태 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우리사회의 생활패턴과 의식, 가치관의 변화 속에 어린이와 고령자의 물적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20 한국경제보고서' 발표는 매우 흥미있는 내용들이다.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다른 나라와 달리 -0.8%로 상향조정했는데 이는 코로나

다시 짚어보는 초고령사회의 정책

19에 대한 적극적이고 대응정책이 반영된 부분으로 생각된다. 반면 잠재성장률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OECD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경고는 단순한 경제지표의 문제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초고령화 문제의 접근, 즉 복지측면과 경제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이라는 복지의 기본 영역의 틀 속에서 상호 연계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주거보장을 강화하면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초고령화에 대응한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은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거선택과 주택의 수준은 직

접으로 거주자의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의학적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택에서 살고 싶어도 주택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장애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부득이 거주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선택권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둘째, 고령화에 대응한 주택의 공급은 단순한 개별적인 주택기능의 차원이 아니라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지역복지의 기능적 전개의 차원에서 중요한 주거환경 요소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일반고령자나 장애고령자가 수용 격리되지 않고 공존공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구축이다. 이는 사회복지의 기본개념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지역사회에서의 정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변화 속 지역사회의 다원화를 제편하기 위한 지역인, 조직, 시설에

의한 지역복지형성의 가능성과 성립조건을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린이와 고령자를 위한 도시, 건축관련 정책적 접근과 보건복지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 구체적으로는 보편적 정주권의 보장, 보편적 이동권의 보장, 보편적 생활복지서비스의 보장,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우리나라 지역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 속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양식·생활의식의 변화, 그리고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쇠퇴가 진전돼 왔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서 복지활동을 주제로 한 새 지역사회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주거와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전환이 필요하다. 지역복지형성에 대한 지역계획론적 문맥에서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열린마당

제주개발공사의 청렴한 보물 이야기



박 지 선
제주개발공사 윤리경영TF

도 개발공사에서는 최근 직원 누구나 공모할 수 있는 'JPDC 청렴한 보물 이야기, 청·보·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개발공사 고유의 창의적인 청렴정책을 발굴하고, 직원들의 참여를 통한 자율적 반부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모 결과 임직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청렴활동, 청렴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바람직한 윤리경영 실천방안, 갑질 근절 등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방안 등 총 8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도 개발공사는 청렴시민감사관과 공사 내 윤리경영추진단, 공사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여해 공정하게

진행한 심사를 통해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내부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및 실천 방안 수립'을 공모한 노사협력TFT 현정학 팀장, 우수상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확대를 통한 공사 청렴도 향상 노력'을 공모한 구매팀 강민지 대리 외 2명, 장려상은 'JPDC와 하나가 되어 함께 하는 JPDC 청렴 캠프'를 공모한 삼다수생 산3팀 김동명 대리 외 4명이 선정됐다. 이 자리에서 김정학 사장은 "공모전에 참여한 직원들의 참여에 감사드리며, 청렴도 1등급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윤리적이고 청렴한 공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김정학 사장이 직접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포상금을 전달했다. 청렴도 1등을 위해, 우리 공사에서는 이번 청렴한 보물 이야기 아이디어 수상작과 공모작들을 바탕으로 청렴, 반부패 활동에 적극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in

원 지사 "태풍 피해상황 취합시스템 문제"

관리체계 정비 지시
○...원회총 제주도지사가 신속대처를 위한 태풍 피해상황 취합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지속가능한 '제주형 정보취합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6일 열린 제10호 태풍 '하이선' 복상에 따른 상황관단회의에서 "태풍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공유·전달하는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었다"면서 종합 관리시스템이 없어 신속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실시간 피해상황을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리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정비 지시, 오은지기자

합금지 행정명령 조치한 농어촌민박과 숙박업(게스트하우스) 내 음식점업소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강력 처벌할 방침. 시 관계자는 "지난 2일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추가된 음식점에 대해 착용의무를 알리고 점검도 실시한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제주관광공사 사장 공모 6명
○...제주관광공사 사장 공모 기간이 지난 4일 종료되면서 응모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 6일 제주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제5대 제주관광공사 차기 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도내 인사 2명, 도외 인사 4명 등 총 6명이 지원. 임추위 관계자는 "제주관광진흥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비전과 전문성, 역량, 리더십, 엄정한 윤리의식 등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책임자를 공정하게 선발해 추천할 계획"이라고 선언. 김현석기자

사설

역학조사 과부하 미리 대비해야 한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현장에서 발 벗고 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역학조사관들입니다. 이들은 감염병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번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방역대책을 세우는 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일등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역학조사관은 총 10명입니다. 이들은 2개 팀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도내 각 보건소별 감염병 관련 직원들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탄력적으로 업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적게 발생할 때는 역학조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동시다발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인력이 부족해 역

학조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속출할 당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는 하루 뒤에야 공개됐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수시로 확진자와 관련 동선을 수정하는 등 인력난에 따른 역학조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제주지역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단순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게스트하우스와 온천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의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학조사에 과부하가 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추적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역학조사관 확충 등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 벌초 대행열 "올해는 자제하자"

제주의 벌초 행렬은 음력 8월 초하루를 전후해 전국 각지와 해외 후손들까지 모여 조상 묘소를 단장하는 오랜 전통입니다. 추석엔 못 오더라도 벌초에는 반드시 참여하는 게 불문율처럼 여겨지고, 10여년까지만 해도 벌초방학을 할 정도로 제주만의 독특한 벌초문화를 지닙니다. 유별난 제주 벌초문화도 올해만은 '예외'로 해야 할 특별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대규모 인원 이동 자체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지사가 나서 대도민 벌초 메시지를 발표할 정도입니다. "청정·안전제주를 지켜내기 위해 벌초·추석기간 제주 왕래를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는 또 '이번 벌초 우리끼리·안전하게·마음으로'란 표어를 담은

'벌초 방역 3대수칙'을 통해 타 지역 친척의 왕래를 최대한 자제해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막고, 벌초후 뒤풀이 자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호소했습니다. 오랜 문화인 벌초 대행열이 행정의 '메시지' 발표만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광화문 대집회나 다중밀집장소를 통한 집단감염 위력을 충분히 보여줘 모든 후손들을 모으는 벌초행렬의 지양 필요성은 매우 큼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은 도민 각자 방역의 주체로서, 마스크 쓰기 생활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있다는 게 방역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올 한해만은 도내 친족끼리 하거나, 벌초 대행업체를 통해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지역 감염확산 차단에 동참합시다. 도민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벌초 방역'에 함께 할 때 지역사회 위기도 조기 해소될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김승언 (제주동부경찰서 경위) 어머니
진주강씨 남선 (향년 74세)께서 서기
2020년 9월 6일 22시 30분경에 별세
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9월 7일(월요일)
▶발인일시: 2020년 9월 8일(화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빈소
▶장 지: 구좌읍 가족묘지
* 연락처: 김승언 010-6660-1618

부 고
강호준 (농업기술원 작물보호 연구팀장)
어머니, 기종 (성산읍장) 할머니 군위
오씨 순재 (향년 97세)께서 서기
2020년 9월 6일 08시 29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9월 7일(월요일)
▶발인일시: 2020년 9월 8일(화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강호정(씨) 머느리 김시자
호준 김수정
장 손 강기종
딸 강신자 사 위 정춘웅(씨)
복자 김소웅(씨)
정자 김정인
행순 정희만
필선 김동화
* 연락처: 강호준 010-8660-1066
강기종 010-3619-9651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추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금매 (운석)
• 감정가 : 20억원
• 매매가 : 2억원 (절충)
※ 대물가능 ※
연락처
010-4855-6013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